물오른 손흥민, '5G 연속골' 대기록 도전

내일 번리전 원정 출격
2주간 5경기 '강행군'
골잡이 케인 복귀 호재

물오른 득점 감각 속에 열흘 휴식을 취한 손흥민(27·토트넘)이 프로 데뷔 첫 5경기 연속골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23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리는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원정경기 출격을 앞두고 있다.

손흥민은 14일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결승 골까지 최근 4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이를 포함해 특히 최근 12경기에서 11골 5도움이라는 무서운 기세를 뽐내며 이번 시즌 총 16골(프리미어리그 11골)을 기록 중이다.

번리와의 경기에서도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까지 유럽 프로축구 무대에서 선수로 뛴 이래 처음으로 5경기 연속 골을 폭발하는 기록을 세운다.

4경기 연속 골은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다.

2016-2017시즌이던 2017년 4월, 2017-2018시즌인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 한 차례씩, 그리고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전까지 한 차례였다.

번리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5위(승점 27)로 처져 있어 손흥민이 충분히 골을 노려볼 만한 상대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에서 팀의 첫 골을 넣은 뒤 양팔을 펼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 /EPA=연합뉴스

최근 주축 공격진의 잇따른 부상 이탈 속에 토트넘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손흥민에게 골잡이 해리 케인이 돌아오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케인은 지난달 중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 이후 발목 인대 손상이 발견돼 한 달 넘게 결장 중이다.

애초 다음 달 훈련 복귀가 점쳐졌으나 회복 속도가 빨라 20일 팀 훈련에 복귀했고, BBC 등 현지 언론은 번리전 복귀를 점치고 있다.

특히 토트넘은 이번 번리전을 시작으로 2주간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등 5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케인이 돌아오면 손흥민이 짊어진 온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3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지난 주말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시즌 2호골을 터뜨린 지동원(28)이 구자철(30·이상 아우크스부르크)과 함께 23라운드 프라이부르크 원정경기를 준비한다.

같은 날 2부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청용(31·보훔)과 이재성(27·홀슈타인 킬)의 '코리언 더비' 가능성이 있다.

둘은 이번 시즌 독일 무대에 진출했으나 팀의 시즌 첫 맞대결인 지난해 9월 6라운드에서는 이청용이 결장해 그라운드에서 만나지 못했다. /연합뉴스

차준환, 동계체전서 피겨 쇼트 1위

4회전 점프 없이 85.06점으로 1위…세계선수권 도전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휘문고)이 4회전(쿼드러플) 점프 없이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 피겨 남자 싱글 고등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차준환은 21일 서울 태릉빙상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기술점수(TES) 45.03점에 예술점수(PCS) 40.03점을 합해 총점 85.06점을 받았다.

그는 이시형(판곡고·73.04점), 경재석(서현고·63.47점)을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선두 자리에 올랐다.

차준환은 마치 연습 경기를 치르듯 가벼운 몸놀림으로 연기에 임했다.

그는 기존 첫 점프 요소인 쿼드러플 살코 대신 트리플 살코를 뛰어 깨끗하게 성공했다.

이어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클린 처리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연기한 차준환은 가산점 구간에서 시도한 트리플 악셀을 깨끗하게 성공했다.

그는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를 마친 차준환은 "올 시즌 너무 많은 대회에 출전해 브라이언 오서 코치 등이 전국체전 출전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며 "컨디션을 잘 조절해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차준환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대회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 스케이팅 A조 남자고등부에 출전한 차준환(휘문고)이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경문 감독, 오키나와 출국…日 전력분석

KBO 구단 선수들 기량 점검도…3월 11일 귀국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향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새로운 전임 사령탑인 김경문(61·사진) 감독이 22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한다.

김 감독은 그곳에서 전지훈련 중인 KBO리그 6개 구단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올해 11월 프리미어 12,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패권을 다툴 최대 라이벌 일본팀의 전력을 분석한다.

김시진 기술위원장, 김평호 전력분석 총괄 코치와 함께 출국하는 김 감독은 이번 오키나와 방문에서 초반 일정을 일본팀 전력 분석에 쏟을 계획이다.

23~24일에는 셀룰러 스타디움을 방문해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라쿠텐 골든이글스, 니혼햄 파이터스 간 시범경기를 관전한다.

25일에는 코자신킨 구장에서 열리는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라쿠텐, 26일에는 우라소에 구장에서 열리는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니혼햄의 연습경기를 방문해 주요 선수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27일부터는 KBO리그 팀들의 연습경기를 찾아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각 팀 감독들을 직접 만나 선수 차출 등 대표팀 운영에 대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27일은 아카마 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연습경기를 관전한다.

28일은 고친다 구장(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과 구시카와 구장(롯데 자이언츠-SK 와이번스), 3월 1일은 아카마 구장(롯데-삼성)과 구시카와 구장(LG-SK)을 방문한 뒤 1일 저녁 귀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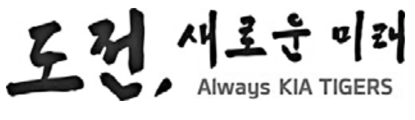
김경문 감독은 3월 7일 일본으로 다시 출국해 8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리는 오릭스 버펄로스와 요미우리의 시범경기를 관전한다.

이후 9일과 10일 이틀간 교세라돔에서 개최되는 일본과 멕시코의 대표팀 평가전을 관전하며 양 팀 대표팀의 전력과 주요 선수들의 기량을 집중적으로 체크할 방침이다.

김 감독은 모든 전력분석을 마친 뒤 3월 11일 귀국한다. 오사카 방문 일정에는 이승엽 기술위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속속 발표

KIA 타이거즈, '도전, 새로운 미래' 캐치프레이즈



KIA 타이거즈 캐치프레이즈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을 약 20일 앞두고 각 구단이 올해 목표를 담은 슬로건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21일 현재 6개 구단이 캐치프레이즈 또는 슬로건을 내걸고 야심 차게 시즌 개막을 준비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는 올해 캐치프레이즈를 '열광, 자부심, 그리고 2019'로 확정했다.

SK는 열정적이며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팬들을 열광토록 하고, 팬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는 SK 야구단의 지향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즐긴 한화 이글스는 'Bring It! : 끝까지 승부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강팀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브링 잇'으로 표현했다. 브링 잇은 '덤벼라'는 뜻이다.

이강철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kt wiz는 '飛上(비상) 2019, 승리의 kt wiz'로 똘똘 뭉쳤다.

지난해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엔 만년 하위권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가자는 결의가 묻어난다.

작년 창단 후 처음으로 최하위의 수모를 당한 NC 다이노스는 새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팀의 면모를 일신하고 '박동 : 팀 다이노스, 하나의 심장을 깨워라'로 의기투합했다.

모든 경기에서 구단, 팬, 지역이 함께 가슴 뛰는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양상문 감독을 다시 부른 롯데 자이언츠는 'One team Giants, V3 2019'를, KIA 타이거즈는 '도전, 새로운 미래-Always KIA TIGERS'를 외쳤다.

롯데는 구단, 선수, 프런트, 팬이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지 못해 1992년 이래 한국시리즈 우승을 못 했다고 반성하고 '하나'를 반드시 이뤄 27년 만에 패권을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았다가 지난해 5위로 포스트시즌에 턱걸이 한 KIA는 '도전'이라는 핵심어로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호랑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캐치프레이즈에 담았다.

전국구 구단인 두 구단이 선전하면 KBO리그 흥행엔 청신호가 켜진다.

캐치프레이즈는 구단의 약속이자 팬들을 결집하는 그 해의 선전 문구다.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슬로건으로 2019년 프로야구는 이미 막을 올렸다.

광주시체육회, 동계체전서 수영대회 홍보

시도체육회 간담회서 홍보물 배포하며 적극 호소
오순근 사무처장 "대회 성공 위해 체육인 역량 모으자"

광주시체육회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동계체전 현지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체육회는 22일까지 서울, 강원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현지에서 오순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오후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홍보용 리플릿과 타월을 나눠주며 수영대회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대회의 흥행과 직결되는 경기 단체 관람 및 입장권 구매에 대해서도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체육회는 남은 기간에도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휘닉스파크,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등 경기장을 찾아 시도 선수단과 관중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수영대회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간담회에서 오순근 사무처장 등 시체육회 임직원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하고 있다.

오순근 사무처장은 "수영대회는 광주시민과 체육인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성공 개최가 가능하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적극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차아정 기자

국제수영연맹, 광주 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23~27일 광주 방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수영연맹 코넬 마르큘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FINA의 이번 방문은 대회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경기시설 분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다.

방문단은 조직위 담당자와 실무회의, 경기장 현장점검 등을 한다.

25일에는 조직위 분야별 담당자와 FINA 사무총장, 시설위원장이 참석하는 실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등 경기장 시설의 5개 분야 30여개 세부사항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6일에는 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과 염주체육관 등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조직위와 대회준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출전권 43%가 배정된 대회여서 전 세계 수영 강국과 선수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아정 기자 chaajung@